民族主義者 古下宋鎭禹선생

誕生90周에 다시 음미해본 그의 片貌

「古下」宋鎭禹선생이 8일로 탄생 90주년을 맞는다. 해방되던해 歲暮 韓某의 흉탄에 숨을 거둘때까지 그의 일생은 反日과 民族主義로 일관했음을 후배 후손들은 밝히고 있다. 그의 片貌를 알수있는 글과 몇분의 증언을 들어본다. 〈편집자〉

『해방전후를 통해 古下만큼 독특하고 슬기롭게 反日투쟁을 전개하고 東亞日報를 통해 민족의 나아갈길을 제시한분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李相敦씨(前 국회의원)는 8일이 古下의 탄신 9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제 그가 幽明을 달리한지도 3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역사적 입장에서의 올바른 평가가 이뤄져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李씨는 최근 일부에서 古下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이들 평가는 단편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것으로 특히 해방이후 공산당과 海外派의 허위선전에 영향을 받은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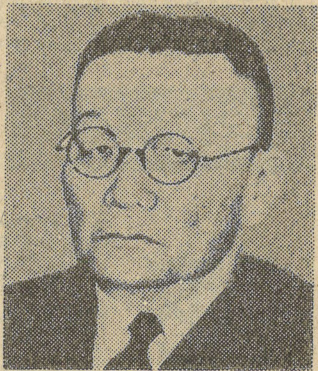
『해방직후인 9월8일 中國「大公報」기자와 인터뷰할때 옆에서 들은 古下의 주장입니다. 「大公報」기자가 朝鮮이 오랫동안 植民地생활을 했으므로 信託통치를 받는게 어떻겠느냐고 묻자 古下는 一言之下에 거절하며 비록 식민지교육일지라도 전문학교이상 대학교육을 받은 한국인이 많고 해외에서 항일투쟁을 해온 혁명세력이 있기때문에 두려울게 없다고 소신을 밝히더군요』

李씨는 이같이 소개하며 당시 해외파에서 古下가 賛託에 기울고있다고 중상한것은 사실을 잘 모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古下가 해방후에 朴憲永등 공산주의자와 공산당을 비판하자 이들이 반격을위해 古下의 親日性을 들춰냈으나 객관성이 없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共産주의자들의 주장이란 古下가 日帝강점기간중 국내에 남아있으면서 한번도 親日을 안했겠느냐는 막연한 것이었다고. 이에대해 李씨는 東亞日報가 폐간된후 집에서 쉬고있는 古下를 찾아갔을때의 逸話를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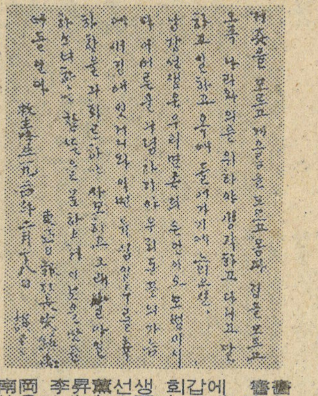
『댁에 도착하니 종로에 한약을 끓이고 있더군요. 어디 편찮으시냐고 묻자 古下의 대답이 「귀찮은 손님이 자주 찾아와서」라고 대답하더군요. 조금후에 안 사실이지만 총독부 관리들이 당시 日帝의 敗色이 짙자 學兵모집을 하는데 古下를 연사로 동원하기위해 자꾸 찾아오자 「꾀병」을 앓으시던 모습이었읍니다. 그들에게 약탕기를 가리키며 몸이 아파 불가능하다고 손쉽게 물리치시더군요』

李씨는 古下의 슬기에 놀랐다고 말하며 당시 국내에 있는 민족지도자중 學兵동원연설에 불참한사람은 萬海 韓龍雲 維石 趙炳玉 碧初 洪命憙 古下등 몇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고 회고한다. 國史편찬위 崔永禧위원장도 學兵 근로보국대등의 동원참가권유연설에 古下가 절대 참여 안한것만 보아도 日帝의 강압속에서 그의 내면에 흐르고있던 反日정신을 엿볼수 있다고 말했다.



50年代의 古下。

反日투쟁속 國民갈길提示
共産主義者에 모함받기도



南岡 李昇薰선생 회갑에 書帖을보내며 古下가 보낸 서신。

한편 해방전의 독립운동에대해 최근까지 원호처의 「獨立運動史」 편찬사업을 주도했던 李康勳옹(78)은 분명히 古下로부터 송금받은 거액의 독립자금만 네차례였음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金佐鎭장군의 휘하에서 독립운동을해온 李옹은 ▲26년5월 모란강驛에서 6千원 ▲28년9월 敦化縣「얼토량쯔」에서 상당액수 ▲29년2월 滿洲의 山市에서 蘇滿국경으로 본부를 이동하려할때 1만원 ▲30년1월27일 金장군이 돌아가자 輓章과 함께 日貨10원짜리로 1만원등 확실히 기억하는 것만도 네차례였다고 밝혔다. 李옹은 이밖에도 古下가 다른 독립운동단체에도 비밀리에 자금을 송금했을 가능성이 짙다고 증언하며 亡命보다 국내에 머물면서 각종활동을 하기위해 日人들과 만난것을 가지고 해방후 공산주의자들이 근거없이 「親日云云」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라고 일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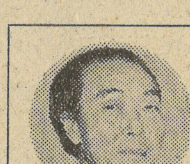
創氏改名반대·學兵참가권유연설 거부

이밖에 古下의 55년동안에 걸친 전반적인 행적에 대해 金善琪박사(明知大명예교수·언어학)는 한마디로 지조를 지킨 철두철미 민족주의자였다고 평가했다. 創氏改名을 강요했을때 換父易祖가 될말이냐며 그같은 총독부의 강요를 거부, 「민족주의자의 심벌」이 되었다고 말했다. 金박사는 또 자신이 古下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된 동기로 33년당시 朝鮮語학회에 근무할때 東亞日報가 新綴字法을 채용하면서부터라고 밝혔다. 당시 편집국의 맞춤법고문으로 일했기때문에 자주 뵙고 「義理」를 강조하는 말씀을 경청할수 있었다고.

특히 金박사는 자신의 先考가 日章旗말소사건(36년)으로 함께 투옥됐었기 때문에 더욱 가까와져 4차로 무기정간 됐을때 仁村댁에서 古下 雪山 張德秀 安浩相씨(당시 普成전문교수)와 더불어 자주 어울려 그의 高談峻論을 들었다고 회상했다. 古下의 암살사건을 印度에서 英國人도 죽이지않았던 「간디」를 인도청년들이 암살한 것과 마찬가지 비중의 사건으로 풀이한 金박사는 古下의죽음이 해방후 최대의 民族的손실이었다고 애석해했다.

古下 90周生日讀

"옳은 일이거든 끝까지 하라" 귀에 쟁쟁



未堂 徐廷柱

나라는 사람은 그 여하한 경우에도 누구의 흉탄도 맞지 않기로 작정하고 조심해 살고 있는 터이니까 解放뒤 오래지 않아 韓○○이라는 청년의 흉탄에 쓰러졌던 古下 宋鎭禹선생과는 이 점만큼은 다르지만 그밖에 여러점에서는 이분에게서 배운게 적지않다.

첫째 내가 지금도 處世訓의 第一信條로 삼고 있는 『제아무리 많이 얽은 빡빡 곰보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이쁜구석이 한 두 군데는 보이는 것이다. 그런것이니 이 험난한 남의 식민지시절의 어려운 우리 民生에서 우리東亞日報기자들은 그결점만 보고 탓하지말고 그 장점될만한 것들을 잘살펴 찾아내서 그걸 늘 칭찬해주고 육성해 가도록 해야겠다』고 日政때 古下社長 시절에 그가 東亞日報社 記者들에게 내린 社員訓이 그것이다. 물론 나는 해방뒤의 美軍政때의 이곳기자지만 古下丈의 이 社員訓만큼은 너무나 좋은 것이라 지금도 여전히 집안에서나 학교에서나 늘 꾸어서 써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또 그분한테서 배운건 『해야만 할것보다 안해야 할것이 더많은 세상이기는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고 하기로 작정한 일이라면 죽는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내야만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六堂이나 崔麟 자네들의 주저는 소용없는 것이다。 한번 옳다고 작정한것인 이상 3·1운동 거사는 기어코 해내야한다. 해야해… 해야 해… 해야한다니까! 이 사람들아!』 하시고 3·1운동 계획참모본부에서 어느날 우리 古下선생이 六堂과 崔麟 두분의 주저하는 모습을 보고 大喝하고 계셨던 그 大義에 대한 그 불멸의 의지다.

나는 이자리에 참모의 일원으로 古下와함께 참석하고 계셨던 故 玄相允선생에게서 이때 이야기를 해방직후 자세히 들을 기회가있어 지금도 역력히 기억하고 있거니와 이런 古下丈의 인생태도는 오늘의 내게도 한 龜鑑이 되어있다. 내가 근년 1년가까운 세계여로의 「멕시코」 旅幕에서 45%의 喀血을 하고도 귀국않고 이어서 여행을 계속해 낼때도 『한번 옳다고 하기로 작정했으면 기어코 해내야만 해!』하셨던 古下어른의 그 不沈의 의지가 문득 기억속에 떠오르곤 했었다.

이 大人君子 어른의 살아계셨을 때의 일을 곰곰 생각해 보면서 있노라면 日政말기의 어느날밤 朴○○이라는 친일파 제1인자가 빼어 든 권총을 보고 요정 明月館에서 『저런 실없은 놈 같으니…』 실소하며 한탄하고 계시던 古下 그분의 그 독특한 실소의 웃음소리가 금시 어디서 들려 오는것만 같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日本국회―衆議院의 의원까지도 되었던 朴○○. 그가 빼들고 협박하던 권총을 한마리 똥파리의 침입처럼 대하며 큰 獅子같이 의젓이만 앉아계시던 그분의 모습이…。

그리고 또 한가지 내 肺腑에 닿아오는 그분의 민족애정의 사무친 모습은 世稱 滿洲 萬寶山사건때의 그분의 처신이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해서 짓누르던 日本정부는 드디어 中國까지를 송두리째 집어삼킬 分外의 야욕을 내서 滿洲일대의 허술한 틈을 노려 여기 滿洲帝國이라는 日本의 괴뢰정권을 세우고 中國人들과 우리 겨레의 단합을 막기위해 그 이간책에 광분한 나머지 世稱「滿洲 萬寶山事件」이라는걸 날조해 내고 『滿洲 萬寶山지구 일대에서 中國人들이 韓國人들을 몽땅 몽땅 살해하고 있다』는 헛소문을 우리 국내에 퍼뜨리고 있었는데 이것도 모르는 우리 국내의 동포들은 이 음흉한 소문에 속아 전국 곳곳에서 중국인 호떡장수 자장면장수 옷감장수들의 가게들을 들이 부수고 몽둥이질을 일삼고 『나가라! 나가라!』 쫓아 내고 못만 있었으니 이것 참 못나게는 큰일난것 아니었는가。

이때 古下어른의 큰이해력이 조사하여 그거짓을 알아내고 日本人들의 그 못된 민족이간의 꾀에 말려들지 않도록 東亞日報 지면의 전활자를 동원해 우리겨레에 알려서 韓中 두민족이 가졌던 情에 금이 안가게 하신것은 참 아찔할만큼 고마운 그분의 정신의 발현의 덕이었으니 말이다. 中正 蔣介石선생이 古下어른의 이짓을 그리워하여 그때 「親仁善隣」의 네글자를 적어 보내셨던게 아직도 東亞日報에는 잘 남아 있을걸로 기억하고 있다.

1945년 8월 해방된지 몇달뒤에 피만 울렁거리는 슬기없는 젊은녀석 韓○○이가 그 어디 2차대전때의 폐품 六穴砲로 이분을 쏘아 죽여버리고 말았지마는 그대 韓○○이도 내 이글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잘못했읍니다』 울며 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國祖 檀君이후 이 어른 古下 宋鎭禹선생 같은분이 이나라에 생겨나 숨쉬고 살다가신 일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을 나는 지금 뼈에 닿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

〈詩人〉